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대학	기간	2019.01.13.~2019.02.02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도보로 5분 거리에 지하철역도 있고 학교 바로 앞에는 버스정류장도 있다. 학교식당에 카페도 있고 다양한 음식도 팔아서 불편함을 못느꼈다. 시설은 깨끗했고 자동문이 많아 편리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내가 갔을 당시에는 학생이 우리학교 학생들밖에 없어서 우리끼리만 수업을 듣게 됐었는데 그 점이 아쉬웠다. 한국인밖에 없기에 조별활동을 해도 한국말로 하기 일수였는데 최대한 영어만을 말하도록 주의를 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영어로 말해 볼 수 있었다. 선생님은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와 주셨고 시작 시간과 끝내는 시간이 놀라울만큼 정확했고 깔끔하게 끝내주셨다. 과제도 있었지만 쉽게 해낼 수 있는 과제였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었다. 모든 활동이 다 재밌었고 알차았다. 박물관, 컬링, 아쿠아리움 등처럼 야외활동도 있었지만 다른 랑가라학생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노는 시간을 갖는 활동도 있었다. 몇 개의 활동에는 과제를 해결 해야하는 활동들이 있었지만 쉽게 끝낼 수 있는 과제이고 끝나고서는 자유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과제 때문에 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추가비용이 드는 일은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경우 외에는 없었으며 컬링을 갈 때나 캐필라노 서스펜션 다리를 갈 경우에는 두꺼운 옷을 한 두 개 입기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장 껴입고 가는 것이 좋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내가 갔을 때는 운이 좋았다. 비도 많이 3주동안 두 번정도 밖에 오지 않았고 그렇게 춥지도 않았다. 아침에 집을 나오면 밤 새 비가 온 것 마냥 습하지만 신경쓰일정도는 아니라 상관이 없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기 보다는 그냥 맞고 다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바람막이 재질 옷이 있다면 추천한다. 롱패딩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져간다면 유용할 것 같다. 또한, 두꺼운 옷보다는 얇은 옷을 레이어드 해 입는 것이 유용하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겨울에는 해가 너무 빨리 저버린다. 한국처럼 늦게까지 전광판이 반짝이는 것도 아니기에 가로등 하나에 의지하기엔 무섭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안전했다. 물론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했지만 그 근처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V)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홈스테이는 너무 가정마다 차이점이 컸다. 힘들어하던 사람도 많았지만 나는 너무 좋았다. 점심을 도시락 싸가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싸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부엌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었다. 도움이 필요할 때면 단번에 도움을 주셨었다. 예를 들면, 헤어드라이기가 없던 나에게 헤어드라이기를 빌려주셨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에 짐이 너무 많던 나를 위해 자신들의 가방을 주면서 내 짐의 수가 적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집안 규칙은 존재했지만 불편할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만약에 홈스테이에 불만이 있어 바꾸고 싶다면, '조금만 참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버티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바꾸기를 권장한다.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틴 사람들 중에 나아진 경우를 보지 못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V)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나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항상 놀러다녔다. 그러다보니 저녁식사를 대부분을 외부식당에서 하게 됐는데, 전반적으로 양은 많다. 소위 말하는 혜자 급이다. 하지만 양이 적어도 열량이 높아서 쉽게 포만감이 느껴지기에 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음식들은 전반적으로 극적이다. 너무 짜거나, 너무 달거나.

	여러 나라 음식점이 많아서 빵 종류 음식이 질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가격은 확실히 싸지는 않다. 재료를 사서 집에서 해 먹으면 싸지만 레스토랑에서 사 먹으면 비싸다. 점심 같은 경우에는 학교식당에서 사 먹거나 도시락을 싸와서 먹었다. 만약에 학교에 있는 서브웨이를 가게 된다면, 반쪽길이 말고 전체 길이를 사 먹기를 추천한다. 반쪽길이는 포만감을 느끼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나는 집이 학교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걸어다녔다. 그래서 방과 후, 놀러 갈 때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 지하철은 깔끔하고 덩다. 한국과 다르게 스크린도어가 없기에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 한국과 똑같이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가서 나올 때 또 찍고 나오면 된다. 또한, 다음 열차가 금방금방 오기에 무리해서 탈 필요는 없다. 버스는 웬만해서는 뒤쪽으로 가서 앉는 것을 추천한다. 앞부분은 노약자석이라 마음 편히 갈 수가 없었다. 탈 때는 한국과 똑같이 교통카드를 찍고 타면 되고 내릴 때는 찍을 필요가 없다. 내릴 때 문이 자동문이 아니기에 기다리고 있으면 안되고 직접 문을 밀어야 한다. 버스가 연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타면 버스가 꺾일 때마다 우주에 온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멀미를 한다면 비추천. 버스 시간표는 구글맵을 추천한다. 택시는 타지 않았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쇼핑	약 50만원	맥아더글랜 아울렛
기념품(아이스 와인)	약 7만원	면세점
화장품(립스틱)	약2만 5천원	MAC
합계	약 59만 5천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짐을 많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 특히 옷. 같은 옷을 돌려 입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조금만 가져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팁 문화도 알아가면 좋고, 꼭 가보고 싶은 장소나 음식점을 미리 결정해 놓는 것도 좋다. 대중교통에서 매너는 가방을 앞으로 메는 것이 아닌 가방을 들어 발 옆에 두는 것이다. 쇼핑을 많이 할 생각이라면 한국보다 캐나다에서 더 싸게 파는 물품들을 알아가면 좋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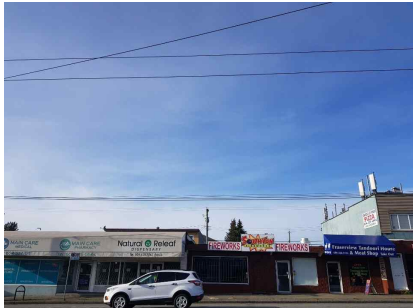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이 이번이 처음이기에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다. 홈스테이도 나는 잘 배정되어 불만이 없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좋았다.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학교수업이었다. 수업이 2주차로 들어서는 순간 흥미를 잃었고, 그 이유는 수업이 너무 도움이 되지 않는 수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만 수업을 들었던 것도 한몫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주제로 수업을 하더라도 다른 학교, 다른 나라 학생들과 함께 들었다면 더 재밌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나는 무척이나 좋았고 편했다. 한국에서는 다른 이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런 스트레스에서부터 벗어나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닐 수 있고, 입고 싶은 대로 입을 수 있어서 편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학교식당에 있는 팀홀튼에서 사 먹은 아이스캡과 초콜릿 도넛이다.	한인식당인 '중원'에 가서 시켜먹은 짬뽕이다.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식당이다.
	
'사무라이 스시'이다. 유명하다. 추천한다.	'THE KEG'에서 소위 말하는 칼질이라는 것을 해보았다. 맛은 그냥 그렇다.
	
스탠리파크에서 찍은 사진이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찍어본 사진이다.	집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하늘이 너무 맑아 찍어본 사진이다.